데이터 시각화 6조 PROJECT

조원: 정소현, 허범, 전바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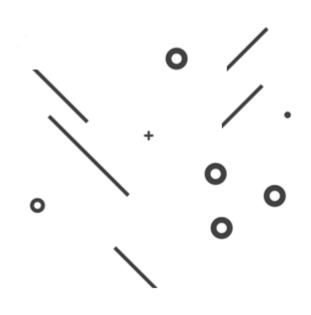






목 차

- 서론
- 자료 추출
- 자료 분석
- 모집단 통계
- 결론
- Q & A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

최신기사

[2017 국감]외인 노동자 2만시대…'신토불이' 외인이 만든다

기사입력 2017-10-20 08:43 | 최정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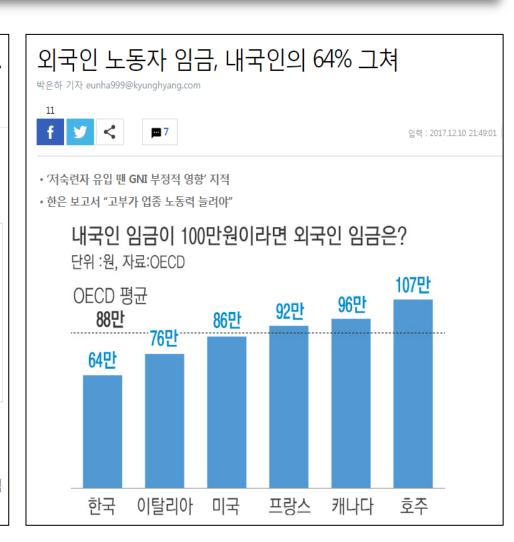


-매년 유입 숫자 크게 늘어...농촌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은 여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리나라 농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농축산업 분야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채우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축산업분야에 도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3년에 5641명이었던 입국자 수는 3년 동안 24.4% 증가해 지난해는 7018명이 입국했다.

올해도 7월까 벌써 6127명이 입국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2만2300명이 넘었다. 여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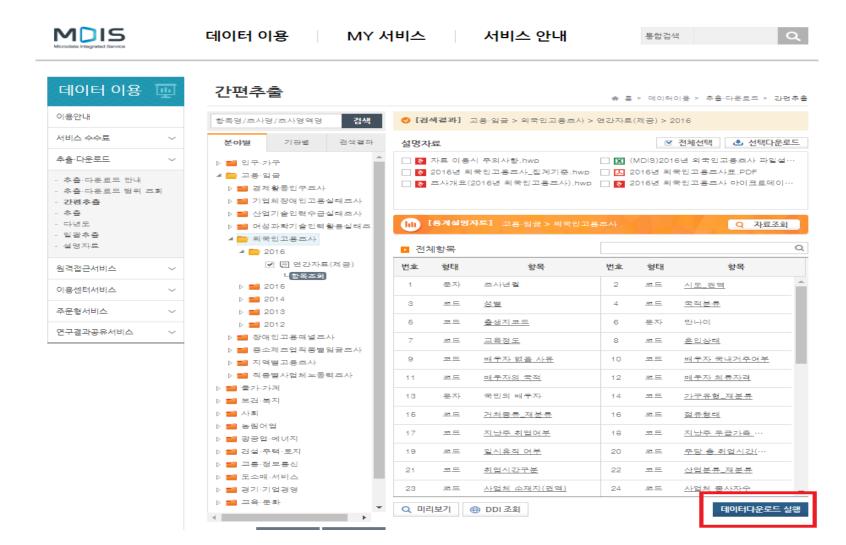
모집단의 특성

모집단 : 2016년 기준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 전체 (96만 2000명)

모집단통계출처: 통계청에서 만든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자료 추출 방법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SimpleSurvSearch.do?curMenuNo=UI_POR_P1200



자료의 특성

○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개인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개인 조사대상주간에 국내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 중 표본으로 선정된 1만명 + 아산시 표본(610명), 파주시 표본(954명)을 추가 추출하여 조사(별도 표본설계) * 전체 표본 11,564(전국 10,000명에서 아산시 610명, 파주시 954명 추가 추출)이며, 밀집지역 표본은 각각 1천명으로 구성
적용분류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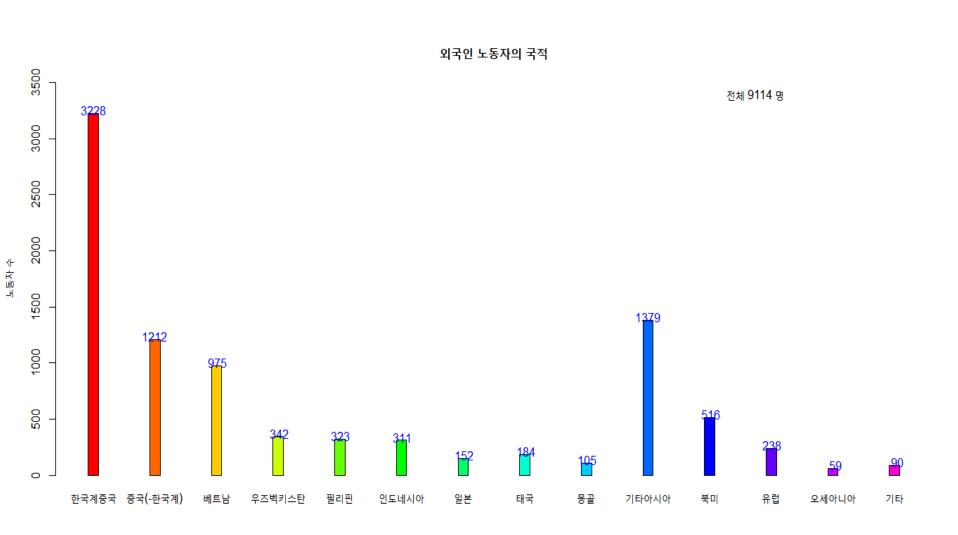
자료의 추정방식

추정기법 : 표본설계가중치에 사후층화를 적용하여 모수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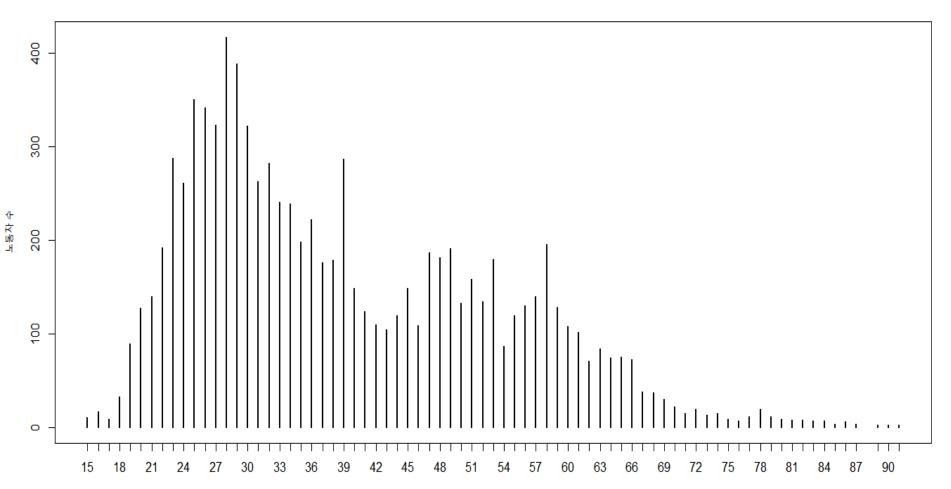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분포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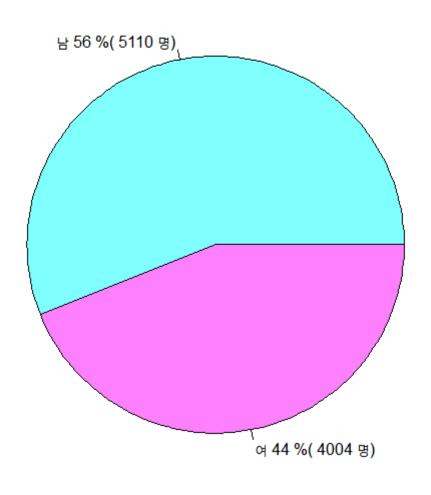
연령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분포

외국인 근로자 나이 (전체 9114 명)



성별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비율

외국인 노동자의 성별 (전체 911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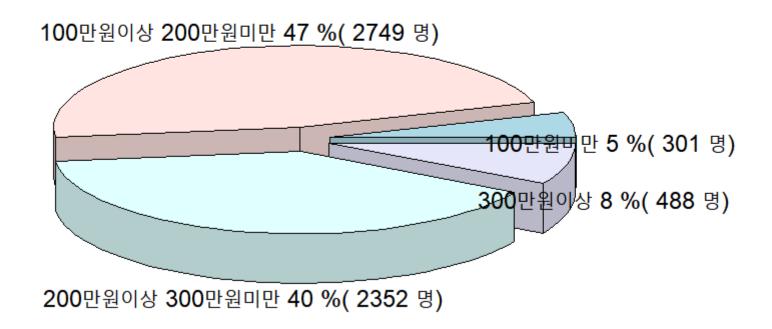


산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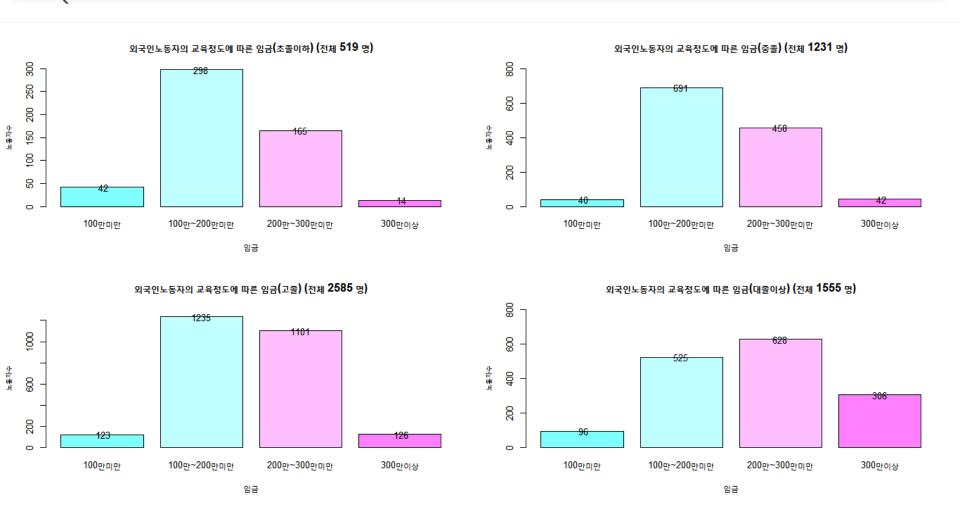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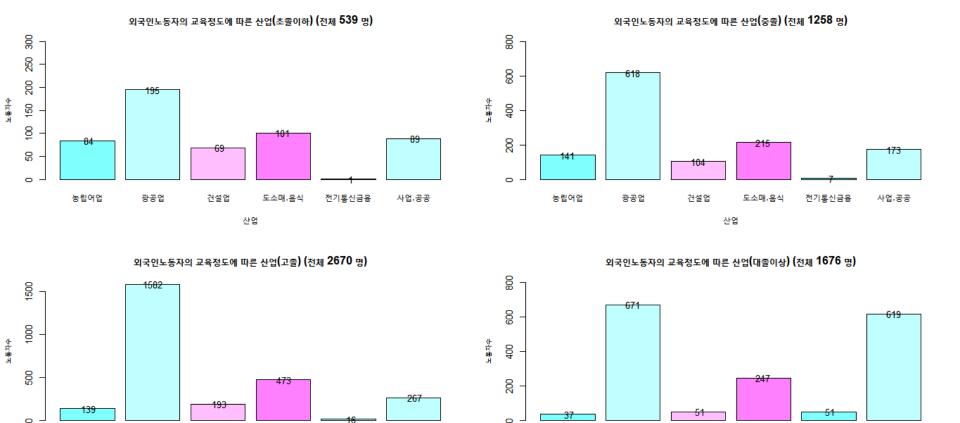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전체 5890 명)



외국인 노동자의 교육정도에 따른 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교육정도에 따른 산업



농립어업

광공업

건설업

산업

도소매,음식

전기통신금융

사업,공공

농립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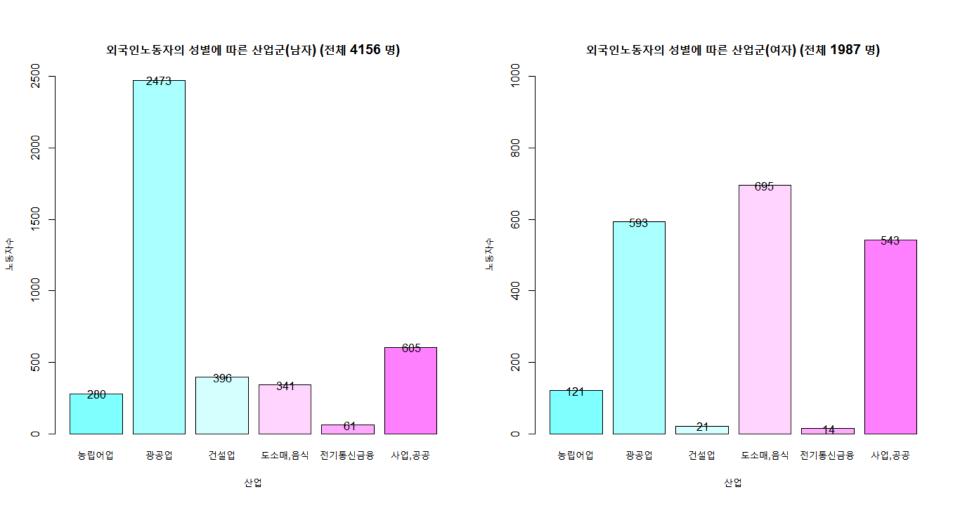
산업

전기통신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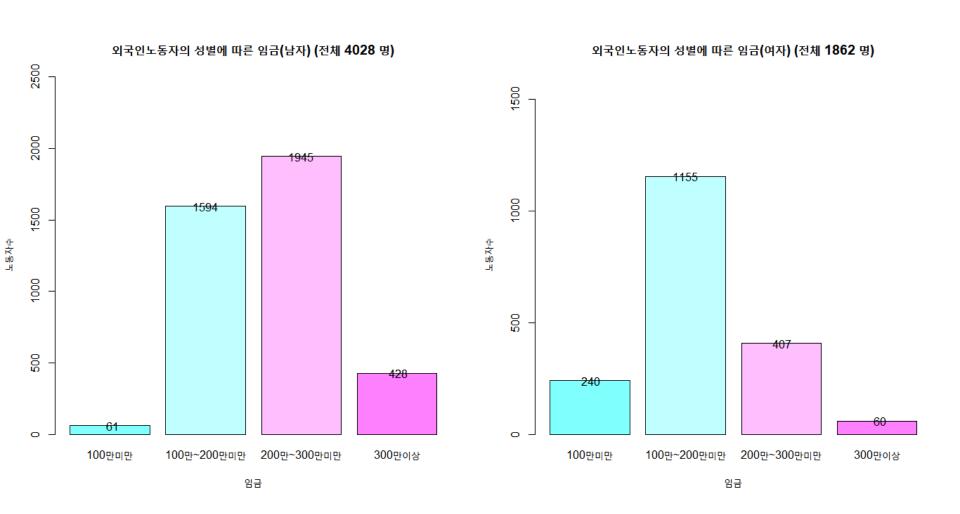
사업,공공

외국인 노동자의 성별에 따른 산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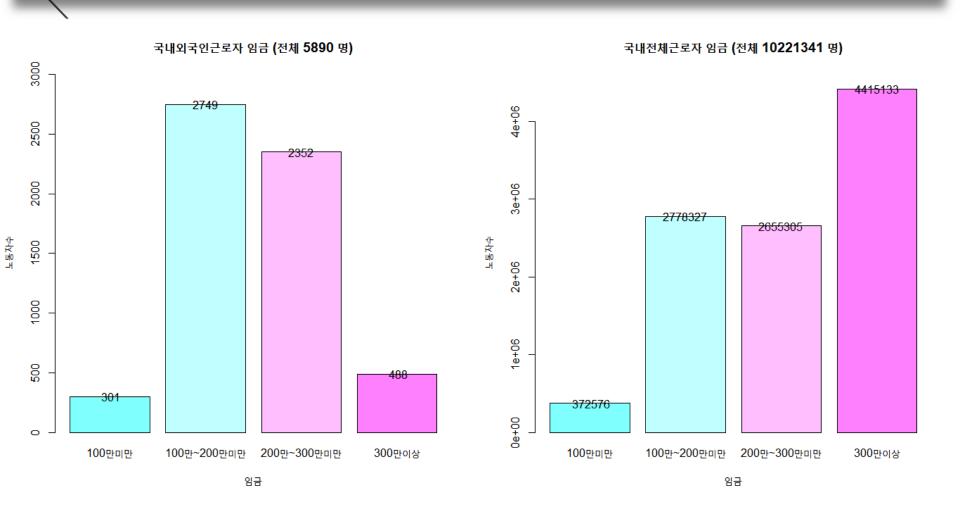
0



외국인 노동자의 성별에 따른 임금



국내 노동자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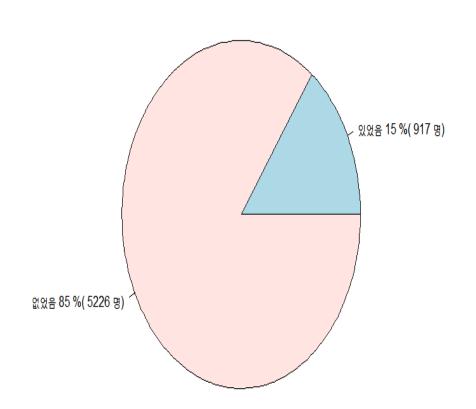


비교대상:고용노동통계

0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변경여부 (전체 6143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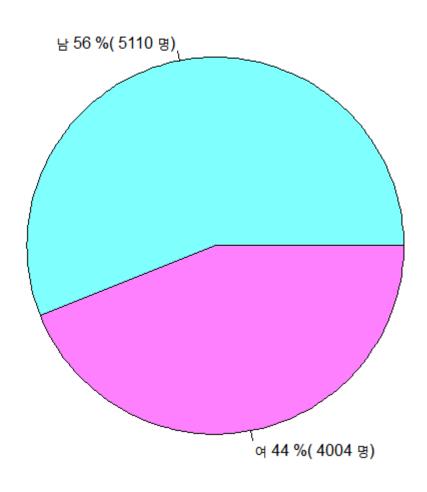




《국내 외국인 취업자의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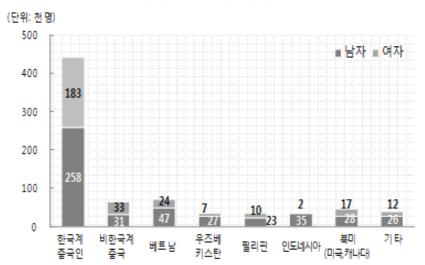
- (성별) 취업자 96만 2천명 중 남자 63만 8천명(66.3%), 여자 32만 4천명(33.7%)
- 전년대비는 남자 1만 2천명(1.9%), 여자 1만 2천명(4.0%)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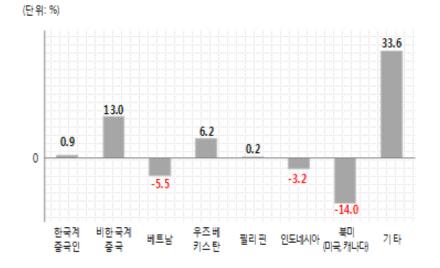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의 성별 (전체 911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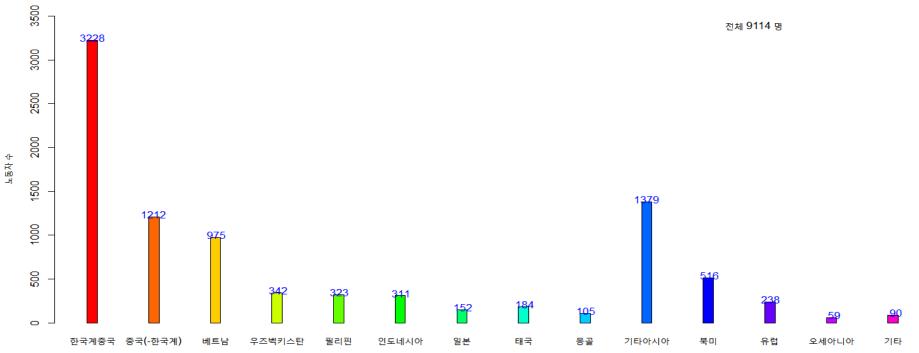
〈국적별 남녀 취업자〉

〈국적별 전년대비 중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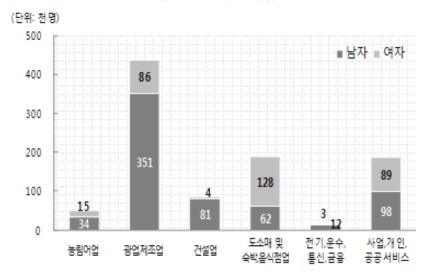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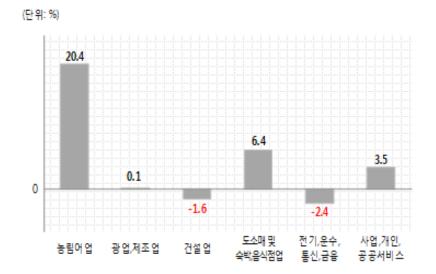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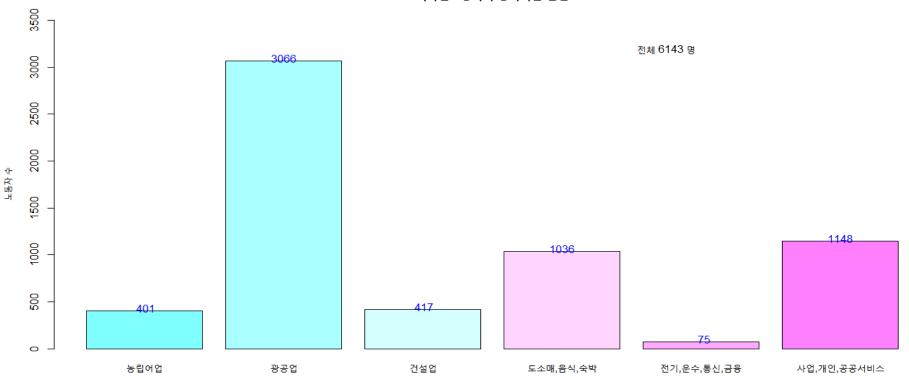
〈산업별 남녀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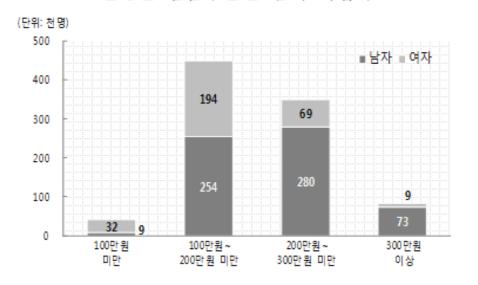
〈산업별 전년대비 중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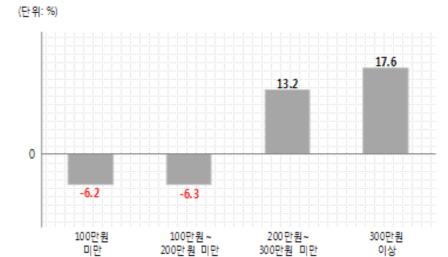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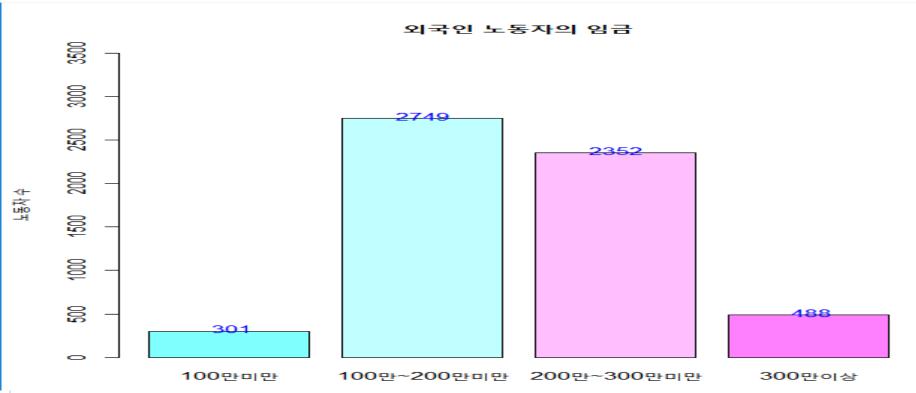


외국인노동자가 종사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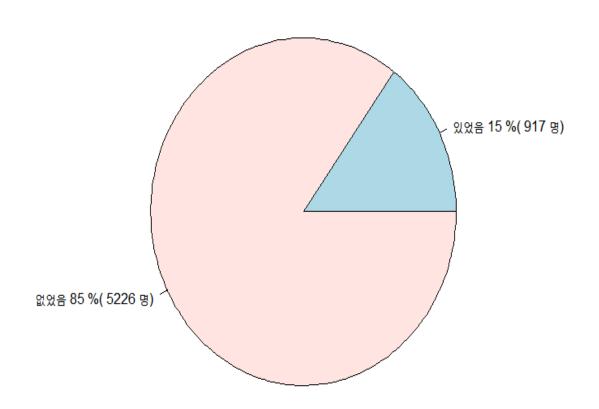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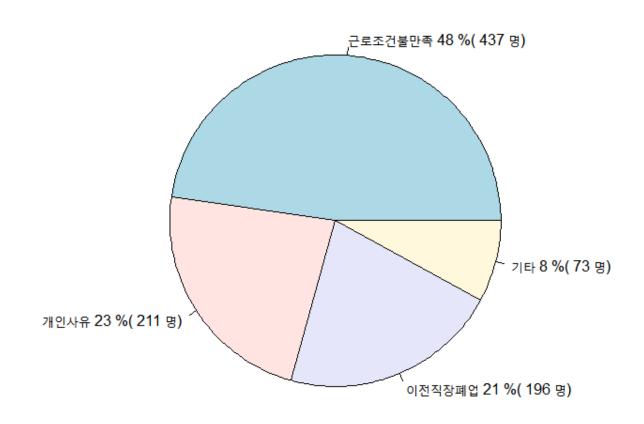
카. 직장변경 및 변경사유별 취업자

- (직장변경) 지난 1년간(2015.5.15.~2016.5.14.) 직장을 변경하지 않은 취업자는 81만명(84.1%), 직장을 변경한 경우는 15만 3천명(15.9%)
- 직장을 변경한 남자는 9만 5천명(14.8%), 여자는 5만 8천명(17.9%) 으로 여자의 변경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o (업종변경) 직장을 변경한 15만 3천명 중 동일업종으로 변경한 취업자는 7만명(45.7%),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취업자는 8만 3천명(54.3%)
- 직장을 변경한 남자 취업자 중 5만 5천명(58.6%)은 다른 업종으로 취업한 반면, 여자는 3만 1천명(52.7%)이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
- (변경 횟수) 직장을 변경한 취업자 중 직장 변경 횟수가 1회인 취업자는 12만 8천명(83.6%), 3회 이상은 1만 3천명(8.8%), 2회는 1만 2천명(7.6%) 순으로 많았음
- (변경 사유) 직장 변경 사유는 이전 직장의 근로조건 불만족(6만 7천명, 43.7%)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전 직장의 휴폐업(4만명, 26.0%), 개인사유(3만 4천명, 22.3%) 등의 순으로 높았음
- 남녀 모두 이전 직장의 근로조건 불만족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개인사유(30.3%)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변경여부 (전체 6143 명)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변경이유 (전체 917 명)





그래서...

한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

전운 기자 > 입력: 2017-12-10 15:37 수정: 2017-12-10 1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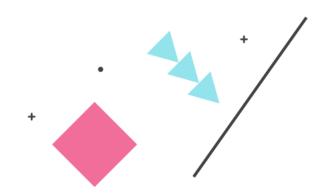
한국은행이 저임금이 고착화된 외국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 다.

한은은 10일 해외경제포커스 리포트를 통해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큰 편"이라며 "외국인 노동 력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지난 2000년 2.8%에서 2015년 기준 3.3%까 지 상승했으나 외국인 고용 여건은 대체로 내국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임금 수준이 낮다.

특히 한국의 내국인 대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수준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집 계됐다.

한은은 "정부재정 및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고숙련·고학력 비중이 높을 수록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Q & A



감사합니다☺

